

발행인
출판부

LWV 문예협회

편집인
고영주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는?>

뱀, 너무 길다 (르나르고-프랑스 시인)

제목: <뱀>

*뱀——부정적인 세계

*길다——당대 프랑스 국민의 느낌.

*당시 히틀러 총통의 권력이라는 풍문은 거짓-쥘 르나르고는 1910년 사망, 히틀러는 1930년이 넘어서 이름 등장.

*이 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못 탄 노벨상을 탔다는 풍문은 거짓. 르나르고는 노벨상 수상 명단에 없다.

<하상욱 시인의 짧은 시>

뭐가 뭔지 ———<연말 정산>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다 쓴 치약>
 꼭 온다더니 또 속인 거니 ———<지구 종말>
 니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신용 카드>

<유명한 시인의 짧은 시>

- * 반딧불을 쫓는 이들에게 반딧불이 불을 비춰 주네 - 오에마루
- * 꽃잎 하나가 떨어지네. 어, 다시 올라가네. 나비였네! - 모리다케
- *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다 미쳐 버렸네 - 시메이
- * 도둑이 들창에 걸린 달은 두고 갔구나 - 료칸

<이 정도라면 누구나 시인 되겠네! 당연하지>

—나도 한 줄 시—

- *모기 잡다 허탕 치면 모기한테 손뼉만 쳐 주네. —모기 최고—
- *'백지짱도 맞들면 가볍다'기에 맞들었더니 찢어지기만 하네. —속담 바꾸기—
- *'가지'는 달걀도 안 열리는데 왜 eggplant라고 우기는 걸까. —병아리 고민—
- *바람이 분다. 향기가 난다. 바람이 스스로 꽃 구경했다고 말하네. —바람 여행—

<나도 3행시>

라 ——
 구 ——
 나 ——

<잘 알려진 짧은 시>

1.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2. 어찌쵸 - 원태연
까맣게 잊었더니
하얗게 떠오르는 건.

3. 만리성(萬里城) - 김소월
밤마다 밤마다
온 하룻밤!
쌓았다 헐었다
긴 만리성(萬里城!)

4. 호면 - 정지용
손 바닥을 울리는 소리
곱드랴게 건너 간다.

그 뒤로 흰게우가 미끌어진다 <흰게우—>흰 거위>

5. 귀 - 장곡트
내 귀는 소라껍데기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시는 영감(inspiration)으로 쓴다. 때로는 난산의 결과물이다>

어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견디다 못해 남편 허리띠를 끌어 잡고 소새끼, 말새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허리띠를 안 잡으면 아기가 안 나온답니다. 그 남편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고 그렇게 세 아이나 낳았답니다. 그는 “그 순간만은 내가 죄인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산모의 진통이 크면 클수록 아이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통 분만보다 정상 경로를 통해 탄생한 아이가 면역력도 강하고요. 세상을 잘 헤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아이를 얻는다는 건 무조건 <Happy-ending>입니다.

시 하나
미소 같은 꽃봉오리
수필 하나
이제 막 피어난
내 누나 같은 꽃

그윽한 향기,

길 따라
빛 따라
밝아지는 세상

—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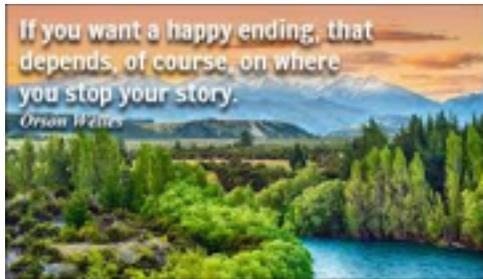
<나만의 자유 공간을 가지고 싶다>

가장 즐거운 글은 싱글빙글
 가장 맛있는 글은 보글보글
 가장 잘 돌아가는 글은 빙글빙글
 가장 만능인 글은 구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글은 한글이지.

글 쓰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글쓰기를 아이 낳는 일에 비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산고를 통해서 애를 낳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의 나라, 사념의 자유, 치욕과 굴욕에서 해방—
 꿈의 실현, 이상향의 추구, 명상과 침묵의 소리—
 글처럼 무한한 <자유 선언>은 없습니다.

글 속에서 <Happy-ending>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러시아 작가 두진체프는 로파트킨이라는 작중 인물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자유의 박탈>은 없다고 절규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육체를 결박해도 오직 사색의 자유만은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색의 샘물을 길고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씩 당신의 유토피아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도 도망가고 기억의 세포가 증식되

고 엔돌핀이 흐른다면 웰에이징(well-aging) 아닌가요.

라구나우즈 문예협회

2017년도 라구나우즈 문예지 출판을 위하여 후원금과 정성을 함께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을을 은근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KAC(한인회)로 pay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tax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사랑모임에서 2년간(2015-세상 이야기, 2016-아름다운 동행) 문예지를 출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정상 출판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협 동아리에서 출판했습니다. 2018년 라구나 문예지는 예정대로 글사랑모임에서 출판 계획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협 8/31 현재까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존칭 생략)

임동호	최인숙	송두빈
이규조	양정애	박길수
손기용	고영철	김홍식
이종숙	강홍식	이재윤
윤종식	윤경순	이원문
박제송	고영주	고정자
임흥순	권영조	이시호
김봉현	주 강	황민자
김웅민	한순고	이지춘
이병소	이정근	Alice 민
김소향	이명하	이종민
김성웅	이강민	김용재
고석원	조영익	박미자
이혜규	이금자	김선하
호기현	장원호	이연길

보내실 곳

Make check payable to: Lee, Kuem Ja or K A C

Lee, Kuem Ja (이금자)

5511-1F Paseo Del Lago W

Laguna Woods, CA 92637

*이금자 (614-638-2581) kuemjlee@gmail.com

*고영주 (310-970-2707) youngjko@hotmail.com

==좋은 글==

졸업생들에게 행운 아닌 불운 빈 이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 연방대법원장이 졸업식 연설을 하고 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지난 6월 3일 뉴햄프셔에 소재한 한 사립중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축하 연설을 했다.

졸업생들 가운데는 자신의 아들도 들어있었는데 그는 졸업생들에게 불운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졸업식 연설 중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 Cardigan's Commencement Address by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 <https://www.youtube.com/watch?v=Gzu9S5FL-Ug&feature=youtu.be>

“보통 졸업식 연사는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따금 너희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의의 가치를 알기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배신으로 고통하기를 바란다. 충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가끔 외로워 지길 바란다. 그래야 친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따금 불행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야 인생에서 기회의 역할을 알게 되고 너희의 성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실패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가끔 패배했을 때 너희의 적들이 너희의 실패를 고소해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을 배우는 길이다.

나는 너희가 무시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프기를 바란다. 그래야 연민과 동정심을 배울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 일들은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이 일들을 통해 유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불행 가운데서 이 메시지들을 배울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립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너희들은 특권층 청소년들이다. 너희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특권층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특권층이 되었다. 너희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 충고는 이것이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졸업 후 새 학교에 가게 되면 길을 걷다 낙엽을 쓸고 눈을 치우며 쓰레기를 비우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너 자신을 소개해라. 그들의 이름을 알고 나중에 학교에서 보게되면 이름을 불러라.

또 다른 충고는 길을 걸어가다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될 때 미소를 짓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녕하세요(hello)라고 인사해라. 너한테 일어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너는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젊은이로 알려지는 것이다”

“마지막 충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라. 이메일이 아니다. 종이에 쓰는 것이다.

아마 10분 정도 걸릴 것이다. 학년이 끝날 때 40명 가량에게 편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40명은 네가 그렇게 해서 매우 특별하게 느낄 것이다. 그들은 네가 한 것 때문에 너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낮는 병인가? 안 낮는 병인가?
낮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낮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거 같은가? 지옥에 갈 거 같은가?
천국에 갈 거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좋은 글에서—

<천재적 두뇌를 찾습니다> 지난 호에서 정답자가 아직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걸 척척 풀면 과거시험은 장원, 고등고시는 수석을 할 수 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이다.”



고3 때 졸업을 며칠 앞두고 수학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우리는 학교를 떠나고 말았지요. 그 당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멩이를 놓고 나는 몇 시간을 끙끙거리면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답이 정답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저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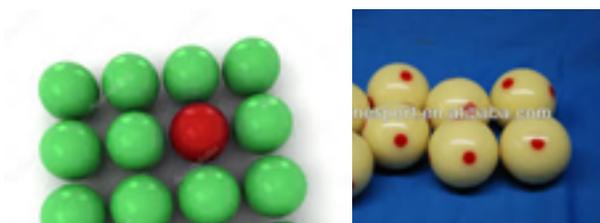
여기에 12개의 공이 있는데 크기, 무게,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중에서 1개만 무게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칭(Balance scale)으로 3번만 달아서 그 공을 찾아내고 다른 공과 비교하여 무게까지 가볍다, 또는 무겁다고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 천재님들은 의외로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지적한 다양한 경우를 제대로 풀어내시면 합격입니다.

정답자가 나오면 다음 호에 발표하겠습니다.





<이건 좀 쉬운가요?>

<문제 2>

해는 지고 날은 저문데
식인종 3사람과 백인 3사람,
이렇게 6명이 티그리스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마침 배 한 척이 있는데 2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곧치 아픈 일은 강변 이쪽이나 저쪽에서 식인종이 한 사람이라도 많을 경우
백인을 식사합니다.

식인종과 백인이 동수이거나 백인이 한 사람이라도 많을
경우에만 백인은 살아남지요.
어떻게 하면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너갈까요?

<이건 금방 답이 보입니까?>

<문제 3>

이 문제를 헤매면 당분간 장사를 접고 잠시 기도원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개살구는 빛은 좋은데 맛이 땡입니다.

개살구 같은 사람이 철수네 식품점에 왔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와서 8천 원어치 식품을 샀습니다.



철수 엄마가 거스름돈 2천 원을 주려고 지갑을 보니 마침 잔돈이 없어서 이웃 가게 영희네 집에서 그 만 원짜리를 바꾸어 와서 잔돈 2천 원을 내주었습니다. 개살구는 좋아하며 식품과 잔돈을 챙겨서 유유히 떠났지요.

10분 후 영희 엄마가 쫓아와서 아까 철수 엄마가 가지고 온 만 원짜리는 위조지폐라며 다른 만 원짜리로 받아갔습니다.

그럼, 철수 엄마는 물건값이랑 합해서 모두 얼마 손해를 보았나요?

아래 문협 집필자 명단에서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e-mail address
강목본	949-257-6828	lingchiang18@gmail.com
강수지	949-454-1212	kbkang@sbcglobal.net
강테레사	949-257-6828	lingchiang18@gmail.com
강홍식	949-274-4199	kanghsmd2@gmail.com
고영주	310-970-2707	youngjko@hotmail.com
고영철	949-609-5193	yckoh1924@gmail.com
고정자	310-970-2708	jungjko43@gmail.com
고석원	949-460-0840	kosukwon@gmail.com
곽병희	949-800-7639	michaelgwak@hotmail.com
권영조	734-934-3164	ykwonmd@yahoo.com
김민정	917-494-3332	nakhykim@yahoo.com
김병희	949-485-4847	byunghee88@hotmail.com
김봉현	773-919-8000	benhkim@hotmail.com
김선하	949-770-3476	sunhakim@comline.com
김성웅	818-378-7613	salomkim@gmail.com
김소향	917-993-1685	mk588@nyu.edu

김용재	702-324-9545	yongjkim@aol.com
김웅민	323-803-0423	woongmin@hotmail.com
김일홍	949-855-8529	ilhong7143082100@gmail.com
김홍식	949-396-2101	hongskimmd@gmail.com
박길수	661-332-1809	gilsoopark@gmail.com
박미자	949-770-2832	mijapark@gmail.com
박성수	949-595-0212	leosoopro@yahoo.com
박제송	949-457-0929	chepark1225@gmail.com
박준영	82-01-3929-1343	tjypark@gmail.com
박희자	818-378-7613	salomkim@gmail.com
손기용	949-461-1638	koramsohn7@yahoo.com
송두빈	323-459-8486	samsong0301@gmail.com
양정애	949-433-2285	tlyang@gmail.com
윤경순	714-269-8849	yoonkay@gmail.com
윤민제	714-745-8397	myoon33@yahoo.com
윤종식	714-269-0514	yoonjs37@gmail.com
이강민	949-315-9884	leemkang@gmail.com
이규조	949-207-6493	kyujolee31@gmail.com
이금자	614-638-2581	kuemjlee@gmail.com
이명하	562-322-4773	myunghlee@live.com

이병소	949-340-7171	byunglee43@gmail.com
이시호	949-282-4644	leesh24@hotmail.com
이연길	972-989-1296	yunlee42@gmail.com
이원문	949-336-2423	josephwlee1965@yahoo.com
이재윤	949-505-2127	lee.124@sbcglobal.net
이종민	224-558-1667	jongminlee0822gmail.com
이종숙	949-647-9383	garam426@gmail.com
이지춘	949-420-1297	chichoonlee@hotmail.com
이철	323-810-8988	leechul1234@yahoo.com
이혜규	201-546-0926	hekjlee17@gmail.com
이황	773-354-0042	hwanglee3@gmail.com
임흥순	949-454-9621	kyunghim@gmail.com
장금주	949-599-4572	ckju113@gmail.com
장원호	949-458-3831	changw37@gmail.com
정베드로	949-528-5208	petergracechong@gmail.com
정정수	215-538-2201	jungjungso@yahoo.com
조영익	847-910-3239	youngikcho35@hotmail.com
주강	949-478-0099	amunado@gmail.com
최인숙	858-248-1704	tulipinsook@gmail.com
한순고	714-612-4075	hansoonko@gmail.com

한주용	402-943-7076	fhahn9911@gmail.com
호기현	949-587-0081	kihofamily@gmail.com
황민자	949-517-8611	minhwang2070@gmail.com
Alice 민	949-707-1806	bomin612@gmail.com